수업료 못 내는 고교생 급증

광주 지난해 1,106명 3억여원…2008년의 3배

강제징수 못 해 교육청·학교에 재정 부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고교에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교에서 지난해 11월 현재 수업료(1인당 연간 131만~135만원)를 미납한 학생은 전체 6만5천938명 중 1천106명(1.60%)으로 미납액은 3억3천5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370명(8천100만원)보다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전체 고교생 중 저소득층 학생 등 10%에 이르는 8천734명에게 62억3천400만원의 수업료를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엔 수업료 지원 대상자의 폭을 넓혀 학부모가 승용차나 주택 등 재산이 있더라도 ▲실직또는 폐업▲질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케이스▲신용불량자로 등록▲채권 압류로 급여 공제▲주택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등 일시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1천932명에게도 수업료를 지원했다.

이 같은 구제조치에도 수업료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서민가정 경제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올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학비를 체납해도 퇴학 등 제재 조치는 없지만, 담임교사나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접어든 고교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선생님의 눈치보기는 물론 급우들 대하기가 부끄러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학부모들도 이같은 사정을 잘 알 텐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의 수업료 조차 미루겠느냐"며 안타까워 했다.

수업료 미납 학생 증가의 더 큰 문제는 고교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에서 학비체납 등 가정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고교생은 2006년 409명에서 2007년 472명, 2008년 510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와함께 수업료 미납학생의 증가는 학교와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업료를 미납하고 졸업하더라도 강제징수 할 수 없다는 법 조항 때문에 졸업 후 1년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돼 공립고는 교육청이, 사립고는 학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물론 일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도 연중 수시로 파악해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3월에 수업료 체납 상황을 최종 집계한 후 적절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점가도 '김연아 열풍'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신' 김연아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영풍문고에서 어린이들이 김연아 관련 서적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싸움놀이 참여 40대 2m 고에서 추락 부상

지난달 28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열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 현장에서 최모(43)씨가 2m 높이의 고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정월대보름(28일)을 맞아 진행된 고싸움놀이에서 지휘자 격인 줄패장으로 참여한 최씨는 왼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임자농협장 후보 4명 구속

목포경찰, 돈 선거 혐의 … 계좌추적 수사 확대

목포경찰은 지난달 28일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당선자 박모(64)씨와 선거 출마자인 김모(49), 또다른 박모(65), 고모(53)씨 등 4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적게는 250여만원, 많게는 3천여만원씩 모두 9천5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출마자 김모(58)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과 박씨 주장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임자농협 조합원 1천93명 중 700여명을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했으며, 남모(67)씨 등 돈을 받은 조합원과 선거 관련자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구속된 박씨 등 출마자와 조합원에 대한 통화내역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 수수자를 명확히 가려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금융거래 장부와 통화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 분석할 경우 더 많은 혐의자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는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유권자의 97.3%가 투표에 참여하고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면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기아로 추돌사고 50대 숨져

지난달 2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기아로 사거리에서 이모(55)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모(34)씨의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 이씨가 그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미성년자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성인 된 후 시작"

대법원, 광주 인화학교 사건 원심 확정판결

"장애학생 성폭행 교직원, 2천만원 배상하라"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광주 인화학교 출신 A(여·25)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학교 직원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이 사건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 25일께 화순 모 휴양림에서 열린 하계수련회에서 A(당시 15세)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6년여가 지난 2006년 10월에야 김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고소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07년 9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 대한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배 청구권의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돼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성년이 된 2005년 4월부터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김씨가 술을 마셔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한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순천시장 출마 예정자 기자 10명에 금품 살포"

선관위 조사 나서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에 순천시장으로 출마할 예정인 A씨가 순천지역 기자 10여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순천 모 호텔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기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해당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돈봉투 살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금품 전달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과 해당 기자들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관급자재 납품대가 '뒷돈' 모 지방지 주재기자 구속

광주지검 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관급자재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광주·전남지역 모 지방지 주재기자 최모(5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11월께 보성군체육회 사무실에서 2억원 상당의 수해복구 자재를 군청에 납품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자신이 회장을 맡은 지역 테니스협회 기금 6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음주운전 스님 2년 도피행각 '덜미'

쌍나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님이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2년여를 숨어다녔으나 결국 경찰에 덜미.

○…지난달 2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사찰에 적을 둔 스님 김모(58)씨를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25일께 광주시 동구 운림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직후 종적을 감췄으나 지난달 23일 경기도 의정부 경찰에 의해 검거.

○…김씨는 앞서 2006년 3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도 광주시 동구 모 사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자 종적을 감췄다는 것.

/김형호기자 khh@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醫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예상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 영어 개강: 3월 8일
검증된 최고의 강사진의 직접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 일반생물학
MDPass醫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